

독감 급증에 미세먼지까지...지역민 건강 '적신호'

병원마다 호흡기 질환자 북적...중국발 미세먼지에 비염 극성 23일까지 대기질 '매우 나쁨'...마스크 다시 쓰고 외출도 자제

“겨우 감기가 다 나았다 싶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오자마자 목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납니다.”

광주 지역에 독감(인플루엔자)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악화하면서 지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역민들은 코로나 이후 치위했던 마스크를 다시 꺼내고 따뜻한 물을 끓여마시며 호흡기 관리에 나섰다. 여전히 병원마다 콜록이는 환자들의 기침소리로 가득한 상황이다.

21일 오전 11시께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 시 남구 주월동 한 이비인후과에는 10여명의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쓴 채 기침을 하고 코를 훌쩍이며 독감 증상을 호소했다.

이날 병원을 찾은 김병우(68)씨는 여러차례 기침을 하고 목이 아픈 듯 보온병에 담아 온 따뜻한 물을 연거푸 들이켰다. 김씨는 “최근 계속 기침을 하고 목살 걸린 것처럼 몸이 으스스해 병원을 찾았다”며 “그렇지 않아도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 오래만에 마스크를 꺼내 쓰고 다녔는데도 독감 증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이비인후과 역시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북적였다. 간호사 박설희(여·43)씨는 “평소 하루 내원환자가 40~50명 있었는데 최근에는 80명까지 늘었다. 대부분 목감기나 콧물, 몸살 증상을 호소한다”며 “과거에는 이 시기에 예방주사를 맞았으나 오는 환자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뒤늦게라도 예방주사를 맞겠다고 오는 환자들도 꾸준히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또 “독감환자 뿐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미세먼지로 인해 비염환자도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광주는 미세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뒤

덮어 탁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미세먼지를 뚫고 산책에 나선 주민들 역시 KF 마스크로 단단히 무장한 모습이었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푸른길을 산책하던 전은영(여·52)씨는 “겨울인데도 그다지 춥지 않아 산책을 나왔는데 미세먼지가 심해 아쉽다”며 “기관지가 약해 공기가 안 좋은 날이면 금방 목이 따갑고 기침을 하는 편이라 이만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행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박모(65)씨는 연신 기침을 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박씨는 “오늘따라 밖에 나오자마자 목이 간지럽고 기침이 나오더니 미세먼지가 심해 그런가보다”며 “아들도 감기에 걸려 일주일 꼬박 고생했다. 아들에게 외출할 때 꼭 마스크 챙기라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일평균 57㎍/㎥, 미세먼지(PM10)는 73㎍/㎥를 기록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82㎍/㎥까지 치솟았으며, 대기환경기준 35㎍/㎥를 웃돌아 ‘나쁨’ 단계를 기록했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36~75㎍/㎥일 경우 ‘나쁨’, 75㎍/㎥를 초과할 경우 ‘매우 나쁨’ 단계에 해당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해를 타고 광주·전남 지역을 덮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광주·전남에 많은 눈과 강추위를 불러왔던 대륙고기압이 약화돼 이동성고기압으로 변화하면서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 상승과 함께 미세먼지까지 불러온 것이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당분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나쁨’,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는 2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뿌연 광주 21일 오후 전일빌딩에서 바라본 무등산이 뿌연 미세먼지로 흐릿하게 보인다. 이날 광주는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한편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광주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 역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행정·공공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한편 임씨는 2021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년 마카오에서도 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임장용은 진흥고를 졸업한 뒤 1995년 KIA 타이거즈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한미일 프로야구를 오가며 선수 생활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장용 징역 1년 6월 구형

8000만원 갚지 않은 혐의 임씨 “7000만원 모두 갚았다”

검찰이 사기혐의로 법정에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장용(49)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 심리로 임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임씨가 1억 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만 반제했지만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임씨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임씨에게 건넨 금품의 형태가 도박칩인지 현금인지 등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임씨는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3월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홀로 살던 60대 기초수급자 “쓸쓸한 주검”

광주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광주시 북구에서 혼자 살던 60대 기초수급자가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수급자인 A씨의 집에 쌀 배달을 하던 B씨

가 ‘문이 잠겨있고 악취가 난다’며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신고했다.

경찰은 집에서 숨진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혼자 살고 있는 A씨의 집에는 침입 등 다른 범죄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특별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비용으로 생활하던 A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민원해결 대가 금품 요구 순천시의회 징역 8년 구형

“민원을 처리해주겠다”며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순천의 한 기초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정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A의원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억98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순천시 한 건설업체에게 민원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의

원은 법정에서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 강요, 뇌물 등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뇌물 약속 외에도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 찾아가 괴롭히고 공무원들을 압박해 공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다음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도록 하는 등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A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